

# Photo Album

## 협회 창립 1주년 기념 등반대회



산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관악산입구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나는 그것이 궁급하대서 주최. 일시는 안자인데 장소는 우째 한글로...?



매표소를 막지나 최석곤 회장과 이영형 이사가 원로(?)일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굳세!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닐까요?



제304영장 부근에서 잠시 목도 죽이고 대화도 나누고... 혼자만 물을 따시는 낭장현 사무국장 알짚쥬?



"산에서는 누구나 고개 숙인 낭자가 된다" -어는 山居人曰. 김기석 YTC 사장(오른쪽), 최석곤 회장(가운데), 낭장현 국장(왼쪽).



갈딱고개를 갈딱거리며 넘었으니 이제 갈딱숨을 꿀떡 삼키며 열 밖에. 모두 땀을 흘리고 있네요!



연주양 대운동장에서 기념촬영. 부처님 오시기 전이어서 온통 연등이 주렁주렁... ESCO협회가 하는 일도 저렇게 주렁주렁...



ESCO협회(회장 최석곤)는 창립 1주년을 맞은 지난 4월 29일 관악산 등반 대회 및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사 대표 및 관계인사 35명이 참석하여 협회 창립 1주년을 축하했으며 관악산을 등반한 다음 과정에 위치한 수산식당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협회는 기념식에서 그동안 협회설립 및 ESCO사업발전에 공로가 큰 산업자원부 오경찬 주무관, 에너지관리공단 류기준 ESCO팀장, 에너지정보센터 김재영 대표, 협회 설립준비위원장이었던 YTC EN-Tech 김기석 대표 4인에

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최석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와중에도 협회 창립 1주년 행사를 빛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ESCO사업의 활성화와 ESCO협회의 발전을 위해 모두 노력하는 것이 곧 국가정책에 협력하는 일인 만큼 각자 주어진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창립 1주년 기념행사는 "회원사들간 상호우의와 정보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화합의 장이었다"고 협회 관계자는 밝혔다.



벚꽃 만발한 꽃그늘에서 한컷. 그런데 두 여자의 표정이 어찌 그리 다들개!



관악산 및 과천 수산식당에서 다시 기념촬영을 했다.



감사패를 받고 있는 YTC EN-Tech의 김기석 대표



감사패를 받고 있는 에너지정보센터 김재영 대표.



만천수에 앞서 최석곤 회장은 "ESCO협회와 ESCO사업의 발전을 위해 다함께 분발하자"고 말했다.



자, 산채 박채일 망정 없다 깔고 내어라! 행사의 마지막은 먹고 마시는 즐거움 아십니까!